

<h1 style="font-size: 2em;">보도자료</h1> <p style="font-size: 1.2em;">2012. 1. 13.</p>	 <h2 style="font-size: 1.5em;">대 법 원</h2> <p>Supreme Court of Korea</p>	
	담당부서	사법정책심의관실
	담당자	사법정책심의관 김춘호 (3480-1254)
	공보관실 ☎ 3480-1451	

초등학생용 사법교육교재(만화) 발간

- 대법원은 초등학교 3~6학년생을 위해 법원의 역할과 재판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학습만화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사법교육교재를 최초로 발간
-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, 국민에 다가가는 친근한 법원 이미지 제고에 기여
-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에까지 배포하여 법관 등의 초등학교 출장 강연이나 초등학생 법원 견학 시 보조 교재로 활용하게 할 예정
-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하여 법교육전문가 뿐만 아니라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도 교재 개발에 대거 참여함
- 시중 서점에서도 만나 볼 수 있음

1. 초등학생용 사법교육교재 발간 목적

- ▣ 초등학생들에게 고리타분하고 어렵게만 생각되어 왔던 재판과 법원에 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여 왔고, 그 고민의 결과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음
- ▣ 법원의 역할과 기능, 재판의 역사와 재판절차, 감동을 주는 명재판 이야기 등을 초등학생들에게 친근한 학습만화 형식으로 풀어내었음
- ▣ 게임 아이템 사기사건 등 초등학생들이 학교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을

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토대로 소년보호재판, 형사재판, 민사재판절차 등을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설명하였음 ⇒ 이를 위해 교재 개발에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도 대거 참여함

- ▣ 만화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법원과 재판에 관한 지식과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2. 사법교육교재의 내용

- ▣ 제목 <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1, 2>

- 각권 200페이지 이상, 올 컬러판
- “바로미”: 사법부의 사이버 캐릭터
 - 모든 문제를 바로 보고, 바로 판단하고, 바로잡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이름
 - 정의가 ‘바로’ 서는 ‘아름다운(美)’ 사회를 만드는 사법부가 되자는 뜻도 내포하고 있으며, 순 한글 이름으로서 바르게, 끈게, 정확히, 틀림없이 등을 의미하는 ‘바로’와 ‘도우미’의 ‘미’를 합성한 것
 - 준거, 기준, 표준을 의미하는 'barometer'를 연상하게 하여 법원의 역할을 쉽게 떠올리게 함
- 바로미가 이 책의 주인공인 ‘똥이’와 ‘나리’를 재미있고 신나는 재판 이야기 속으로 안내함

▣ 제1권

- 제1화 ‘법, 법, 법이 필요해!’- 사회생활에서 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
- 제2화 ‘형들도 재판을 받다니!’ - 초등학교 화재사건을 소재로 소년보호재판의 절차와 목적 등을 설명
- 제3화 ‘법원과 재판, 그것이 알고 싶다.’- 법원의 역할, 재판의 종류, 심급제도의 기능 등을 설명
- 제4화 ‘똥이, 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했다고?’- 주인공 똥이가 게임 아이템을 사기당한 사건을 소재로 형사재판절차를 설명

■ 제2권

- 제1화 ‘뽕~ 재판의 역사 속으로’- 중세 유럽의 마녀재판, 우리나라의 망주석 재판이야기를 통하여 재판의 역사를 설명
- 제2화 ‘정약용과 라과디아 판사’- 정약용 선생과 라과디아 판사의 현명하고 따듯한 재판이야기를 소개
- 제3화 ‘친구들에게 무슨 사건이?’- 숯불구이집 화상사건,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다친 사건, 성형외과 병원의 초상권 침해사건, 아동 성폭행사건 등을 소재로 민사재판절차를 설명하고, 각종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설명
- 제4화 ‘법조인이 되고 싶어요.’- 주인공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보여 줌

3. 교재 글과 그림

가. 글

- 초등학생 법교육 전문가 및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
-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
 - 서울교육대학교 법교육연구소 소장
- 장원순 공주교육대학교 교수
 - 초등사회문화교육의 구체화 연구, 초등사회과교육에서 정치적 판단력 증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접근법 등 관련 분야 연구논문 다수
- 권혜정 서울창일초등학교 교사
- 김상돈 서울상원초등학교 교사
- 박형근 서울등원초등학교 교사
- 이지혜 서울한서초등학교 교사

나. 그림

▣ 극동만화연구소

- <WHY 한국사> 시리즈 작화
- 대표 만화가 : 이근 작가
 - 대구미래대학 애니메이션학과, 게임과 겸임교수 등 역임
- 참여 만화가 : 한혜정, 이태화, 최은정

4. 배포 및 향후 활용방안

▣ 1만여권을 전국 고등법원, 지방법원, 가정법원, 지원에까지 배포하였음

▣ 전국에 있는 77개의 어린이도서관에 각 2세트씩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임

-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, 부평기적의도서관, 서귀포기적의도서관 등 77곳

▣ 초등학교 출장 강연 보조 교재로 활용

- 초등학교에 출장 강연을 나가는 법관들의 보조 교재로 활용하고, 학교 측에 선물로 제공 예정

▣ 초등학생 법원 견학 학습 보조 교재로 활용

- 법원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나 학교 측에 선물로 제공 예정

▣ 민원인 대기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법원과 재판제도 홍보에 기여

-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대기실, 민원대기실, 조정대기실 등에 비치함으로써 재판과 민원처리를 기다리는 시간을 무료하지 않게 보낼 수 있고, 법원과 재판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▣ 시중 시점에서도 구입 가능

-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중 시점을 통하여 유상판매 예정 ⇒ 2012. 1. 16.부터 구입 가능
- 현재 유통되고 있는 비슷한 학습만화보다 저렴하게 공급

▣ 대법원의 법원전시관 선물코너에도 비치하여 판매 예정

5. 교재발간사업의 의미

-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단순히 준법의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 원리와 그 중요성에 대하여 스스로 깨닫게 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원과 재판, 나아가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
- 사법부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사법교육교재를 발간한 최초의 사업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임
- 2010년도에는 중고등학생을 위해 <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, 전4권>를 발간하여 전국 중고등학교에 무상으로 배포한 바 있음 ⇒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향후 위 중고등학생 교재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추진할 예정임